

# ‘고졸 루키’ 김현수 “개막 엔트리 목표로 성장할 것”

두하중 기자

KIA 오너나와 스프링캠프를 가다



“개막 엔트리에 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올해 1군에서 저의 활약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KIA타이거즈 고졸 루키 김현수가 입단 후 첫 실전을 마친 뒤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현수는 지난 2일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연습경기에서 등판했다. 프로 입단 후 첫 실전 투입이었다. 하지만 부담감이 컸던 걸까. 성적은 다소 좋지 않았다. 그는 1이닝 3피안타 1볼넷 2실점을 기록했다. 실점 없이 이닝을 마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김현수는 이날 3이닝 무실점으로 투구를 마친 황동하 이후 6회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상대 선두타자와의 승부에서는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잡았다. 하지만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을 내줬다. 이어 후속타자의 땅볼로 2루 주자를 잡아냈다. 한수호의 뜬공은 박민의를 받아 처리했다.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뒤에는 장승현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범타로 처리될 수 있는 타구였지만, 강한 바람으로 영향으로 수비가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첫 실점이 나왔다. 이후 양우현과 이성규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으면서 추가 실점했다. 양우현은 중계플레이어로 홈에서 아웃, 이닝을 마쳤다.

김현수는 이날 직구, 커브, 스위퍼를 구사하며 총 17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 평균 구속은 145km, 최고 구속은 148km였다.

상대 선두타자와의 승부에서는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잡았다. 하지만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을 내줬다. 이어 후속타자의 땅볼로 2루 주자를 잡아냈다. 한수호의 뜬공은 박민의를 받아 처리했다.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뒤에는 장승현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범타로 처리될 수 있는 타구였지만, 강한 바람으로 영향으로 수비가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첫 실점이 나왔다. 이후 양우현과 이성규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으면서 추가 실점했다. 양우현은 중계플레이어로 홈에서 아웃, 이닝을 마쳤다.

김현수는 이날 직구, 커브, 스위퍼를 구사하며 총 17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 평균 구속은 145km, 최고 구속은 148km였다.

김현수는 첫 실전을 마친 뒤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라이브 피칭을 할 때보다 더 급해진 경향이 있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며 “첫 공은 차분하게 던지자는 생각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다. 이후 카운트가 불리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보니 급해진 것 같다. 오랜만에 타자를 상대했다. 타점 등을 다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끝나고 투수코치께서는 ‘첫 실전인데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고 말씀해주셨다. 다음에 등판하게 되면 변화구 컨트롤을 잡아야겠다고 말씀해주셨다”며 “김태균 선배님은 손을 넓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조언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김현수의 주무기는 스위퍼로 꼽힌다. 홀로 독학하며 이 구종을 익혔는데, 주변의 평가가 좋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는 변화구 제구가 흔들렸다. 다만 직구에서는 확실히 위력이 있었다. 분당 회전수(RPM)가 2200을 넘을 정도로 힘이 강하다.

## 2차 스프링캠프 삼성라이온즈와 연습경기서 첫 실전 등판 1이닝 3피안타 1볼넷 2실점...“제구력 과제·직구는 자신”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볼펜피칭하는 김현수 선수.



다. 전체적으로 낮게 가는 경향이 있었다. 높게 형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면서 “직구는 제일 많이 던져본 구종이다. 직구를 못 던지면 투수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 있게 던졌다. RPM은 2200 중후반 정도 된다”고 언급했다.

바람의 영향으로 첫 실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가 없었다.

김현수는 “내가 집중해서 타자를 처리해야 한다. 한번 흔들리고 주자를 싣다 보니 수비들도 한 곳에 오래 서 있고 힘들어진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되돌아봤다.

광주 송정동초-화순중-나주 광남고BC를 거친 김현수는 2026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20번으로 KIA에 뽑혔다. 프로 입단 후 첫 캠프인 만큼, 수확도 많았다.

그는 “선배들이 하는 루틴을 많이 배웠다. 내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하는 방법 등을 알게 됐다. ‘네가 잘하더라도 우쭐대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양현중·전상현 선배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장에서 투구시 구속은 느려도 제구가 되면 운영이 된다. 제구를 가장 중점적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는 개막 엔트리에 드는 것이다. 김현수는 “올해 첫 번째 목표는 개막 엔트리에 드는 것이다. 이어서는 2군에서 생활하지 않고 1군에서 선배님들과 경기를 뛰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김도영 2경기 연속 홈런’ 한국, 오릭스 8-5 제압

WBC 조별리그 앞두고 승·2회초 스리런포 폭발

한국 야구대표팀이 월드베이스클래식(WBC) 평가전에서 김도영(KIA타이거즈)의 스리런포를 앞세워 승리를 따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2026 WBC 공식 평가전에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버펄로스 8-5로 제압했다.

앞서 2일 한신타이거즈와 3-3 무승부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로써 일본 프로팀들과의 평가전을 1승 1무로 마감했다.

한국 대표팀은 5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와 맞붙게 된다.

이날 한국은 김도영(KIA타이거즈)-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타이거즈)-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안현민(KT위즈)-문보경(LG트윈스)-세이 위트컴(휴스턴애스트로스)-김혜성(로스앤젤레스다저스)-박동원(LG)-김주원(NC다이노스)으로 선발 타순을 구성했다.

한국 타선은 2회초 폭발방향을 뿜냈다.

선두타자 안현민이 중전 안타를 터뜨렸고, 문보경과 김혜성이 연속 볼넷으로 출루했다. 1사 만루 상황 박동원의 안타와 김주원의 땅볼로 1점짜리를 따내면서 2-0이 됐다. 2사 1·3루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김도영. 그는 풀카운트에서 상대 변화구를 받아 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포를 폭발시켰다.

전날 한신타이거즈전에 이은 WBC 공식 평가전 2연속 홈런이다.

이어 2사 1·2루에서는 안현민이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한국이 6-0으로 크게 앞섰다.

한국은 4회말 3실점을 한 뒤 5회초 한국계 위트컴의 솔로포로 다시 격차를 벌렸다.

8회말에는 유영찬(LG)이 볼넷과 안타를 내주며 위기를 맞았고, 1사 2·3루에서 희생플라이와 안타로 2점을 더 내줬다.

9회초에는 썬이 홈런이 터졌다. 선두타자 안현민이 상대 다카시마 다이토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이치를 그렸다.

이후 오릭스는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경기는 8-5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클래식(WBC) 평가전 한국 대표팀과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경기. 2회초 2사 1·3루 한국 김도영이 3점 홈런을 친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서울시청 꺾고 ‘2연승’

SK호크스아레나서 31-28 승·김지현 9골·5도움 ‘MVP’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서울시청을 꺾고 2연승을 달성했다.

광주도시공사는 2일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5차전에서 서울시청에게 31-28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인천시청을 39-25로 격파했던 광주도시공사는 이로써 4승 8패 승점 8점을 기록, 리그 7위 자리를 유지했다. 6위 서울시청(승점 9점)과는 1점차로 좁혀졌다.

이날 경기에서는 김지현이 9골(공격성공률 56.3%)·5도움으로 맹활약하며 경기 MVP에 선정됐다. 연지현은 5골(공격성공률 83.3%)·2도움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골키퍼 이민지(5세이브·방어율 22.7%)와 유정원(4세이브·방어율 26.7%)은 9세이브를 합작했다.

전반 초반은 서로 2골씩 주고받으며 2-2로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먼저 흐름을 가져간 건 광주도시공사였다. 최수지가 가로채기에 이어 속공으로 4-2까지 치고 나갔다.

서울시청은 송지영과 우빛나의 골로 5-5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송지영이 2분간 퇴장으로 빠지면서 광주도시공사가 함지선과 김지현의 연속 골로 8-5로 다시 앞섰다.

기세를 가져온 광주도시공사는 공세를 펼치면서 17-13으로 앞서며 전반전을 마쳤다.



2일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5차전에서 광주도시공사 김금숙이 점프슛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KOHA)

광주도시공사는 후반전 상대 실책으로 기회를 잡으면서 29-21까지 달아났다. 이후 유정원이 상대 정이린의 속공을 막아내면서 추격 의지를 꺾었다. 서울시청은 마지막까지 공격에 나섰다.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결국 경기는 31-28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역대 최대의 축구 잔치, 북중미서 6월 12일 킥오프

7월 20일까지 48개국 104경기... 韓 축구, 원정 대회 ‘첫 8강’ 도전

‘지구촌 최대의 축구 잔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23회 FIFA 월드컵인 올해 대회는 6월 12일(한국시간)부터 7월 20일까지 39일간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본선 진출국 확대에 따라 총경기 수도 기존 64경기에서 104경기로 증가했다.

본선 운영 방식도 대폭 변경됐다. 4개국씩 1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24개 팀에 성적이 좋은 조 3위 8개 팀이 합류해 32강 토

너먼트를 시작한다. 조별리그 3위 팀에도 기회가 열린 점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는 한국은 원정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에 도전한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PO 패스D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된 흥명보호는 6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승자와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격돌하며, 25일 오전 10시에는 몬테레이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연합뉴스